

“부처님 가르침 거울삼아 직무 수행 전력”

“대화·합의로 종회 이끌겠다”

인터뷰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조계종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종회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건강한 종책을 위한 토론과 의원 스님들의 흔들림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종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16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출된 성문 스님은 1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종회 운영방안과 종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명진 스님의 사퇴로 만장일치로 종회의장으로 선출됐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다. 임시의장으로 나선 영담 스님의 신상발언부터 명진 스님의 폭로,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간의 거친 언행까지 16대 중앙종회는 개원부터 불협화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개원부터 ‘베그덕’ 된 16대 중앙종회에 대해 성문 스님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제가 종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때와 지금은 인적 구성부터 환경까지 달라져 있어 생소함이 많았습니다. 종책 모임까지 나눠 어저 소통과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개원종회에서 보여줍니다. 예전보다 의원 스님들이 종헌종법에 밝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다소 언어적 표현이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회와 의원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기 종회의장으로서 성문 스님이 밝힌 운영원칙은 종회 근본정신을 살려 종헌종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계파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회의의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종회의장은 81명 의원들이 종회 안에서 활발히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고 견제, 비판할 수 있게 보호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사실 수행공동체에서 여야, 계파라는 표현이 사실 거북스럽습니다. 마지막에는 표결에 부쳐야겠지만 이전에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가공동체에서 바른 법에 의지해서 바른 안목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대중은 수긍할 것입니다.”



중앙종회의장, 대단한 직책 아닌 의정활동 보조하는 심부름꾼

집행부 비판, 필요하면 해야지만 승려복지·성역화 등 협력해야 “시대·상황 맞는 종헌 개정 필요”

집행부와는 관계 부분은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실제 성문 스님은 의장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종회는 입법 견제 기능도 있지만 집행부가 잘 하도록 협력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집행부가 성공한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그대로 내비쳤다.

“현재 집행부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승려복지, 조계사 성역화 사업 등은 종회도 충분히 협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선학원 갈등, 종헌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소신있게 피력했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제

도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선거인단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선거인단을 넓혀 총무원장을 선출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구조에서 직선제는 종단을 크게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종회의장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종헌 개정에 대해서 성문 스님은 한 가지의 개정이 아닌 전반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종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헌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변화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종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행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 장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돼 종헌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관리법으로 인한 선학원과 같은 등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밝혔다.

“법인관리법의 사찰보유법인은 재산이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처럼 상황이 진행될 것은 안타깝습니다. 선학원은 범어사 등 종단 사찰에서 출자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 같은 갈등에서 종단이 지혜롭게 풀어야 합니다.”

1994년 징계사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종단이 부담을 안고갈 일이 아니다”며 종단의 화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구니 참정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15대 중앙종회에서 있었던 만큼 그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봤다.

성문 스님은 기자회견 말미에 앞으로의 2년이 중요하다 짧게 말했다. 2년동안 많은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이며 종도들의 협력에 대한 당부였다.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을 위해서 앞으로의 2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힘겨루기하고 대립하는 사이 역사와 대중들은 흘러 가버릴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종단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16대 중앙종회 원 구성 확정

조계종 16대 중앙종회는 11월 11일 개원과 200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선서하고 회의를 통해 16대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본지는 16대 중앙종회 원 구성된 80명의 명단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수석 부의장



지현 스님(사회분과)

차석 부의장



오심 스님(포교분과)

총무분과(15명)



함결스님(위원장)



지현스님



지현스님



진화스님



경우스님



법상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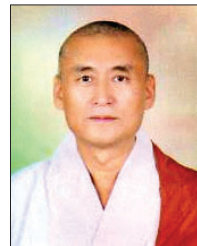
종민스님



제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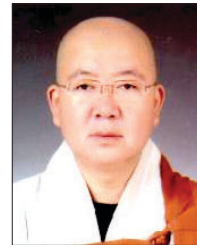
선광스님



동산스님



태효스님



환적스님



덕현스님



우봉스님



지흥스님(비구니)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